

### 최근 4~5년 사이 보급률 급증한 CTP시스템

CTP(Computer to Plate)를 더 이상 필름출력 단계가 없이 컴퓨터에서 판으로 직접 출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2010년을 기준으로 CTP시스템은 국내에 600~700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보편화되었고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CTP시스템은 아그파, 스크린, 코닥, 하이델베르크, 후지필름 등의 소위 '브랜드 CTP'를 공급하는 메이저업체들과 루셔(국내공급사 토탈컴텍), 바시스프린트(국내 공급사 에스앤아이시스템즈), 클론(한국IPA클론) 등 비교적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IT기술 및 디지털인쇄의 발전에 따라 급작스럽게 등장하고 급성장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던 CTP시스템 시장은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장의 성장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 및 인쇄업계의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매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시스템공급업체들도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각 사별로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능의 업그레이드, 최신 기술의 적용은 물론이고 단순한

**특장점으로  
차별화 추구하는  
시스템업계  
세분화 경향 두드러진  
판재시장**

장비의 판매를 벗어나 워크플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고객의 수익성 향상을 돕는 것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사들은 실과 바늘과 같은 판재의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판재시장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비해 훨씬 복잡다기한 구조를 갖고 있어 '혼란'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CTP시스템과 판재를 사용해야 하는 인쇄업계에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자기 회사의 작업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작업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과 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답식 또는 O, X식으로 특정회사의 시스템과 판재가 좋고 나쁘다는 식으로 단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사의 현재 상태만이 아닌 미래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마다의 장점과 개성을 갖춘 CTP시스템을 선택하고 상황에 적절한 판재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시장 세분화 두드러진 가운데 중저가 선호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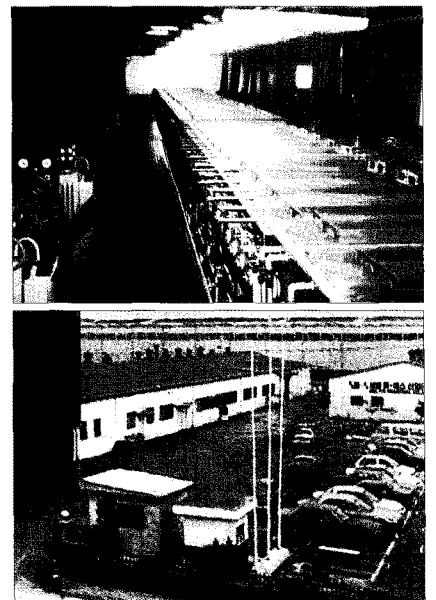
인쇄용 판재를 크게 나누면 PS판과 CTP판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PS판은 아날로그 판재, 또는 일반판, 혹은 컨디셔널판이라고 부른다. CTP판은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디지털 판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PS판재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CTP판재의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점유율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대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업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일반판의 점유율이 70%선, CTP판의 점유율이 30%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CTP가 앞서 보급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CTP판의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폭발적인 성장은 없더라도 전체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판재는 편의상 생산하는 나라별로 외산, 국산, 중국산 판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 외산 - 고품질, 국산 - 친밀도, 중국산 - 가격

외산 판재는 인쇄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 보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그파, 코닥, 후지필름 등의 판재를 들 수 있다. 생산 역사가 오래되고 기술 개발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고품질, 고가격의 판재로 인식되어 있다.

국산 판재는 국내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품질 면에서는 외산 판재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는 인식을 주고 있지만 고객과의 높은 친밀도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판로를 확보해 왔다. 국산 판재 업체는 세일피에스, 정도케미컬, 삼성PS, 제일PS, 금성PS 등 많은 업체들이 있다.

국산판재는 일반적으로 신판, 임대판, 재생판 등의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무렵까지는 외산과 국산으로 구성되었던 판재 시장이 2005년 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판재가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시장에 진출했으며 품질 면에서도 꾸준한 향상을 이끌어내 현재는 판재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화광, 코니카, 디탑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 진출하는 중국의 판재 브랜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30~40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단편적으로 판재공급원을 구별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을 인쇄사들로서는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인 아그파 코리아가 국내에 판재생산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코닥의 중국에 판재 생산기지를 두고 있지만 소재나 생산시스템 등을 글로벌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일부 판재업체들은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국내로 역수출하기도 해 이 경우에 단순한 수출로 보아야 하는지 등은 선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선두주자는 화광으로 지난 2006년 이후, IAP인터네셔널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중국 화광판을 보급하고 있다. 가격 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중국판재의 영향력은 외산 판재 및 국산 판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산판재 공급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자사 시스템에 맞는 자사의 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인쇄품질의 안정성 구현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도 이점이 많다는 것을 홍보하는 한편으로 시장을 세분화해 대응하는 것으로 마케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즉, 안정적인 품질과 일관된 작업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고급형 판재시장과 현재의 생산성 및 경제성에 비중을 두는 중·저가형 판재시장에 각각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산 판재공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내 판재업체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하는 중에서도 외산 판재와 같은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로 워낙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산 판재가 국내 판재시장에 들어온데 따른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즉, 외산 판재는 애초부터 중국산 판재와 타깃으로 하는 고객들이 차별화되어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국산 판재는 중국산 판재와 수요층이 겹치게 되면서 중국정부의 세계 혜택까지 받는 중국산 판재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처음부터 뚜렷한 열세를 보였으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단행한 가격인하는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맞는데 일조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외산은 롤타입, 국산은 시트 타입 많아**

판재는 알루미늄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외산 판재가 주로 롤 타입으로 가공하는데 국산은 시트 타입이 많다. 롤 타입으로 가공하면 판재의 품질 및 성능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롤상 판재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넓고 긴 공장라인을 확보해야 하며 적합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런 까닭에서 국산 판의 경우,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트 타입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트 생산방식이 롤 상태의 알루미늄을 미리 원하는 사이즈와 수량으로 절단을 해서 생산을 하는 공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규격을 원하는 수량만큼 미리 재단해 두고 원하는 수량만큼 즉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산 판재는 균일한 품질관리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트 생산방식을 선호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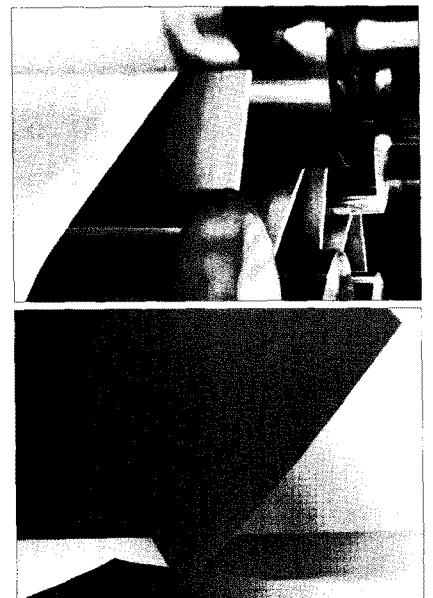
그러나 국산 판재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한편, 몇몇 국내 판재업체들은 롤 타입의 판재 생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트타입과 롤 타입의 가공에서 방법적인 차이와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설비와 적용 시간이 필요하고 품질 면에서도 완전하게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업체 가운데 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은 최대 PS 판 생산사인 세일피에스 정도로 현재 국내 및 베트남 생산라인에서 시트 방식으로 판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 생산라인에서 롤 방식으로 판재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롤 생산방식은 롤 상태의 알루미늄을 그대로 연속 생산해 마지막 공정에서 절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특정 규격의 롤을 안정적인 조건에서 대량생산(약 4~5톤)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한번 생산하기 시작한 롤을 도중에 중단할 수 없어 다양한 규격을 단시간에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판재 개발에 관심**

CTP판도 외산, 국산, 중국산이 보급되어 있다. 외산 CTP판재는 크게 포토폴리머, 써멀 방식으로 나누는데 포토폴리머는 바이올렛 판재로 볼 수 있다. 400nm의 자외선 단파 광원으로 감광되며 대부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작된다. 윤전 업체나 신문사 등이 주요 수요처이다. 써멀 방식의 판재는 비교적 장파인 830nm의 적외선 광원으로 감광, 처리되며 써멀 판재는 주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현상 과정을 생략한 무현상 판재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약품의 사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작업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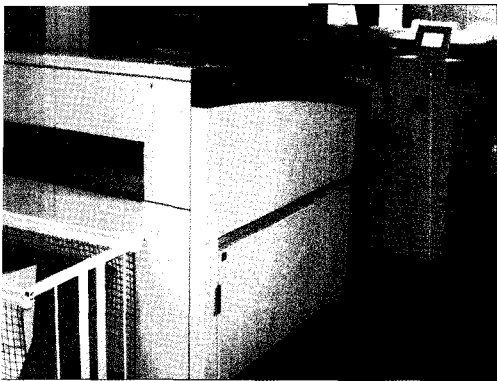
**친환경, 신뢰성 높은 시스템에 초점 맞춘 아그파코리아**

아그파코리아는 아발론 N시리즈를 CTP시스템에서 대표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8-up크기의 써멀 레이저 CTP인 N시리즈는 GLV기술을 바탕으로 레이저 다중 채널로 분할과 동시에 노광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간편한 로딩과 언로딩,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 구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으로 배려한 설계 및 기능성이 특



징이다. Thermofuse 기술을 이용한 아주라 TS를 사용하게 되면 현상액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액만으로 세척이 가능하다. 즉 무현상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 최근 인쇄업계 최대의 관심사라는 친환경에 매우 적합하다. 이와 관련, 아그파코리아의 박웅식 부장은 “무현상판은 비싸다는 우려를 많이 하지만 운용비용이 기존 판에 비해 7%정도 낮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더 들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그파코리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고객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객의 구매 예산, 요구되는 품질 수준 등에 맞는 사양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4000dpi를 실현할 수 있다든가 렌티큘러 등의 특수 인쇄를 위한 추가적인 사양을 위해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비사용의 확장을 위한 멀티 컨베이어도 선택할 수 있다. 아그파코리아의 CTP시스템에 대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성능과 부가기능의 최대화 및 안정성, 친환경성에 주력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객의 상황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을 적절히 지원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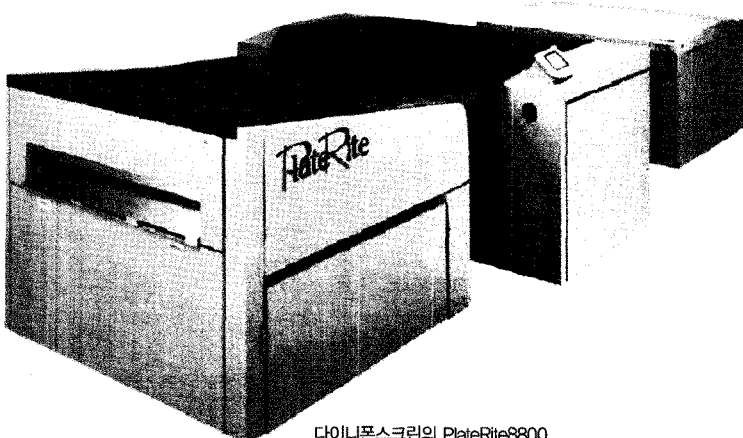
아그파의 아발론N8

#### 모든 종류의 판재 공급, 고급 인쇄 지원

판재에 있어서 아그파코리아는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판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는 CTP시스템은 써멀과 바이올렛이지만 고객 지원차원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판재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공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고의 인쇄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장비에 특화된 판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지만 판재의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고객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사의 CTP시스템을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그파코리아의 CTP시스템과 판재에 대한 마케팅의 초점은 별개의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워크플로 및 컬러매니지먼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인쇄산업 자체가 종합적인 면을 갖고 있는 동시에 문화, 예술적인 면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인쇄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프리프레스 워크플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CTP시스템과 판재도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하고 마케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양한 제품군으로 선택의 폭 넓히는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는 현재 시간당 최저 8매에서 51매를 출력할 수 있는 CTP 시스템인 PT-R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군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폭넓은 선택을 돕고 있다. 모델별로 타깃이 되는 고객층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작업과 뛰어난 인쇄물의 품질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5급중인 모델 가운데 최고 사양인 PlateRITE 8800N-ZX/Z/S/E 기술을 활용한 1024채널의 이미징 헤드를 장착해 시간당 최대 출력할 수 있다. 빠를 뿐만 아니라 뛰어난 품질의 하프톤을 재현 산성 향상과 고품질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업그레이드 출력물 및 고정밀 특수인쇄에 적합한 4000dpi를 지원한 인쇄 및 렌티큘러 인쇄도 지원한다.



다이니폰스크린의 PlateRite8800

8300N-S/E는 엔트리 레벨의 써멀CTP로 8300N-s 32채널의

광원을 탑재하고 있다. 시간당 최대 14판의 출력이 가능하며 뛰어난 경제성을 갖춘 8300N-E는 16채널의 광원을 탑재했으며 시간당 8판의 출력할 수 있어 소규모 출력을 원하는 업체에 특화된 모델이다.

PT-R 8000N시리즈는 오토 밸런스 기능이 특징이며 오퍼레이터는 미리 설정한 판의 크기 및 종류를 선택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안정된 드럼 밸런스를 찾아 필요한 조정을 실행한다. 8000N시리즈는 자동 인라인 편칭이 특징이며 인쇄기와 핀 맞춤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다. 판재가 드럼에 감기기전의 짧은 순간에 인라인 편칭에 의해 편칭이 이뤄진다. 8800N/8600N은 상위모델로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사용자의 작업 사양에 맞춰 편리하게 장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이네펠스크린코리아의 정연광 차장은 “다이네펠스크린코리아가 갖고 있는 CTP시스템 시장에 대한 접근은 전자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고객에게 인건비 및 운영경비의 절감을 안겨주는 것과 앞으로 장비 발전성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인쇄표준화환경의 구축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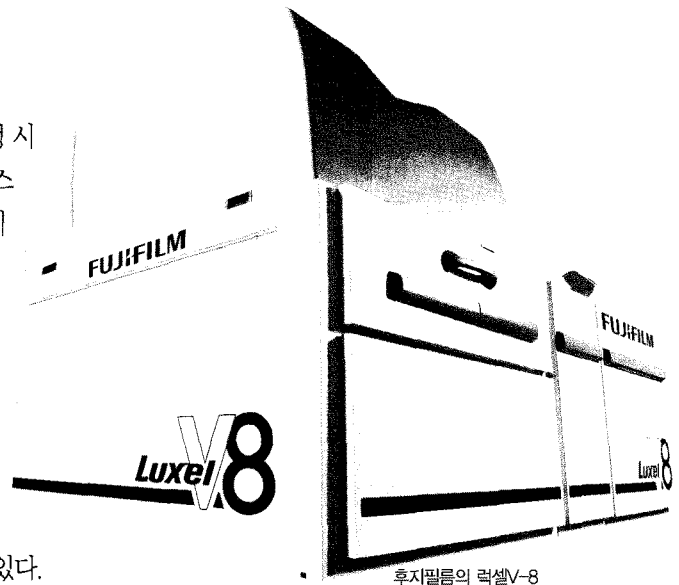
#### 써멀형 판재 공급, 가격별 시장 세분화 대응

다이네펠스크린코리아는 현재 써멀형 판재만 공급하고 있다. 자사에서 공급하는 CTP시스템이 써멀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써멀형 이외의 판재를 공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고객들의 여건상 일반판재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고객을 위해 기계적인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작업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언과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고급판재의 우수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중저가를 선호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판재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시장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마케팅은 자사의 CTP시스템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 원활하게 업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판재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일일 생산량 많은 고객 고려한 제품 공급, 후지필름

후지필름의 렉셀 CTP시리즈는 일일 생산량이 많은 상업인쇄와 일정 시간 내에 고속생산을 실행해야 하는 신문작업의 특성에 맞춰 제작된 시스템이다. 견고한 디자인과 폭넓은 해상도를 지원하며 다양한 인쇄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품질을 지원한다. 주요 메이저 브랜드 제품 가운데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의 판재를 사용하며, 내장 드럼 방식을 채택하여 써멀 외장 방식에서 발생하는 그리퍼(Gripper)가 발생하지 않아 높은 내쇄력이 요구되는 운전인쇄에도 우수한 활용도를 발휘한다.

또한 카세트당 150장 적재가 가능한 온라인 멀티방식은 최대 750장의 각기 다른 크기의 판재를 한 번에 장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으로 판 교환을 할 수 있어 작업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후지필름의 신문 생산용 CTP시스템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3가지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렉셀 V-8 CTP시리즈 모델은 반자동, 싱글카세트 및 멀티카세트 방식으로 다양하게 고객의 사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앞으로 주요 화두



후지필름의 렉셀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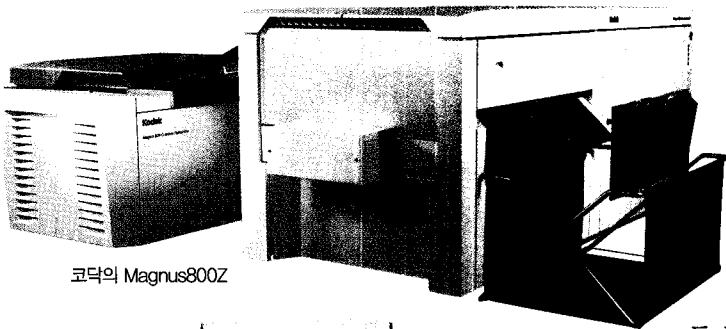
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현상 판재의 사용도 가능하다. 해상도 면에서도 1200~3657dpi까지 폭넓은 해상도를 지원하며 정확한 이미지 구현과 반복정밀도가 요구되는 상업용 인쇄에 적합성을 갖고 있다. 후지필름은 이와 함께 5년간 R&D연구소에서 개발한 어도비 기반의 XMF 2.0 워크플로로 인쇄회사의 작업 플로우 자동화뿐만 아니라 인쇄물의 기획, 수주 단계에서 프루프, 집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업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 고객 요구에 부응, 환경친화 판재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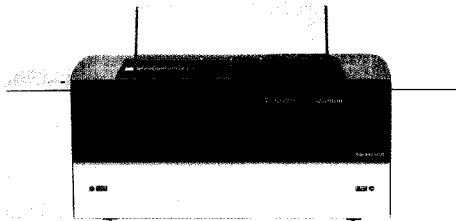
후지필름의 국내 공급사인 성도GL은 내약품성이 뛰어난 UV인쇄전용판을 공급하는 한편으로 CTP판인 바이올렛 포토폴리머와 써멀판도 공급하고 있다. 강행권 부장은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써멀판에서는 무현상판재를 포토폴리머에서는 저약품성 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성도GL/솔루윈이 판재시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품질의 일관성과 관리비용의 절감이며,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수익 실현을 최대화하도록 돕는 파트너십의 발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코닥, 신속한 현장 업그레이드로 차별화

코닥은 국내 인쇄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판재의 출력이 가능한 트랜드세터에서 대형인쇄에 적합한 매그너스에 이르는 다양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시간당 16장에서 최대 60장까지 고객의 필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속도의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객의 업무량 폭주 또는 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빠른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한국코닥 프리프레스사업부의 임채영 이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린트 어워드를 받은 코닥의 스캐어 스팟 써멀 이미징헤드는 정확하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준다”며 “이는 코닥이 추구하는 일관된 품질 구현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코닥은 이외에도 판두께, 판재 감도, 현상 약품 또는 레이저파워 변화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 고정밀 망점 구현과 작업 일관성을 제공하는 다이내믹 오토 포커스 기능 및 인쇄물에 모아레, 로제트현상, 톤 점프가 없는 뛰어난 이미지를 구현하는 FM스크리닝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한국코닥의 임채영 이사는 “코닥은 하드웨어 부문에서도 뛰어나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최고 품질의 인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코닥의 프리너지 워크플로는 표준화된 PDF 및 JDF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종류의 파일 포맷을 받아들이며 모든 종류의 출력장비 및 교정 장비에 직접 출력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자동 작업 데이터 관리 및 백업을 지원한다. 또한 최신 아보비 프린트엔진을 적용, 투명 개체 및 레이어드 PDF를 지원하며 화면을 통한 원격지 교정도 가능하다.



코닥의 Magnus800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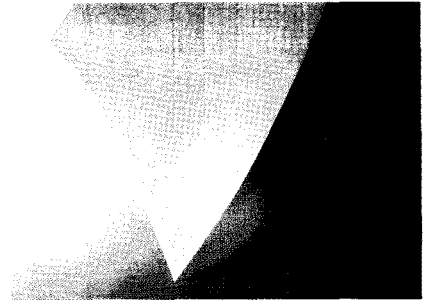


코닥의 TrendSetter800III

#### 고객의 효율적 경영 지원하는 다양한 판재 공급

코닥은 중소형에서부터 대형 상업인쇄 및 포장인쇄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써멀 CTP판재를 공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품질 및 장풍의 내쇄력과 빠른 이미징속도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EXD, 고객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고품질 및 일관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저가형 브랜드인 CAP GT, UV잉크 사용 고객 또는 특별한 내쇄력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Sword Ultra, 친환경 무현상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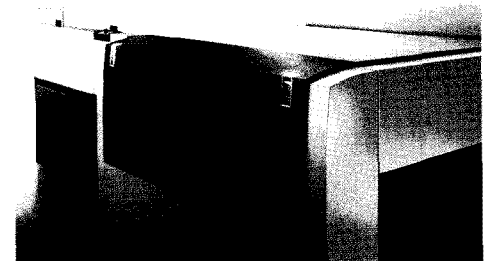
Thermal Direct 등이 있다. 코닥은 앞으로의 주역 판재로 Trillian SP판을 내세우고 있다. 네거티브 워킹 방식으로 예열과정이 필요 없고 기존의 다양한 판재의 장점을 흡수, 통합한 차세대 프리미엄 써멀 CTP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코닥은 저가격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선향에 대해 CTP판재 만의 가격이 아니라 고객의 주문 접수 부터 최종 납품 그리고 사후 A/S 까지 총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유·무형의 모든 서비스가 반영된 가격을 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에 무수의 중국판재, 국산판재등을 저가로 공급하는 업체들과의 단순한 가격 비교는 코닥 CTP판재가 갖고 있는 제품자체의 안정성과 우수한 품질 및 일관된 품질의 기대예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수평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코닥은 고환율이 점차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독점적인 레이저 시스템 공급,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는 독자적인 모델인 수프라세터 CTP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CTP시스템에 있어 몇가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장기적 시각의 투자이다. CTP는 인쇄실에서 인쇄기와 함께 판 출력기의 성능은 특히 중요한 성공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프라세터시리즈는 인쇄실의 까다로운 조건을 철저히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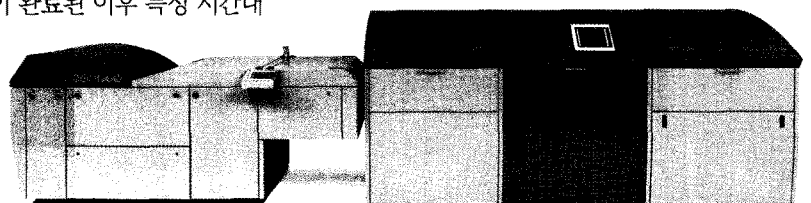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는 자체적으로 개발, 제작한 레이저를 통해 우수한 이미징 품질과 최고의 생산성을 제공한다. 매우 깊은 포커스를 제공하며 내장 펀칭 시스템은 인쇄기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 작업과 매우 정확한 핀 맞춤을 보장한다. 수프라세터의 레이저 시스템은 특히 하이델베르크가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인텔리전트 다이오드 시스템 (IDS) 를 통해 뛰어난 품질과 함께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한 개나 여러 개의 다이오드가 손상되더라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수프라세터는 인쇄사의 매출성장을 대비해 모듈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전체가 모듈식 디자인으로 고안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인쇄사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더라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예컨대 CTP판 출력기의 자동 적재를 위한 판 적재 시스템을 매우 짧은 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비롯, 판 취급, 판 종류 및 규격, 펀칭 시스템 및 자동화 수준에 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인 환경 친화성면에 있어서도 하이델베르크는 높은 생산성과 함께 환경 친화적으로 판을 처리하는 최신의 판 기술을 사용한다. 모든 수프라세터는 무현상 써멀 인쇄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상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의 수프라세터

### 뛰어난 내구성, 고속생산 CTP 공급하는 시스템테크놀로지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는 신문사용 CTP를 공급하고 있다. 상업용 CTP와는 개념적으로도 많이 다를 뿐 아니라 판재의 크기도 다르며 생산속도에 대한 이해도 판이하에 다르다. 더욱이 24시간 생산체제가 아니라 편집이 완료된 이후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신문사의 작업 성격을 감안하면 신문사용 CTP시스템은 강한 내구성과 빠른 작업속도를 지녀야 한다. 고장의 발생이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은 상업용 CTP도 마찬가지이지만 신문용 CTP의 경우에는 사고가 아닌 재앙의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제의 Blue Fin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가 공급하고 있는 CTP시스템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크라우제의 시스템이다. BlueFin현상기와 통합되어 있는 크라우제의 LS Jet Asia는 2L1W크기의 판을 매시간 최대 225매까지 생산할 수 있어 경쟁사에 비해 25%이상의 높은 생산속도를 갖고 있다. 또한 작업의 시간생산성을 높이는 멀티포맷 기능을 갖춰 실제로도 시간당 200장 이상의 작업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크라우제의 시스템은 CTP와 현상기의 통합이 특징이다. 이 역시 신문사용 CTP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모든 포트폴리머 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크라우제 OEM편치벤더와 온라인으로 연결된다. 시간에 쫓기는 신문사의 작업시간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신문제작에 있어 크라우제 CTP시스템은 써멀에 비해 짧은 파장으로 강한 에너지를 분출, 선명한 망점을 재현할 수 있으며 초점을 조정하는 것도 비교적 쉬운 이점을 갖고 있다. 최대 2540dpi까지 지원하며 1000~1270dpi사이는 단계의 구분 없는 조정이 가능하다. 크라우제의 CTP시스템은 비용적인 면에서 경쟁모델에 비해 비싼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문사용으로 특화되어 있어 비교에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철 차장은 “분명 신문사용 CTP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옵션을 선택할 경우 상업용에도 부분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크라우제의 LS Jet CTP시스템은 가격적으로 고가이기는 해도 저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것은 큰 이점이며 판재에 있어서도 네거티브의 폴리머 판재뿐 아니라 포지티브 실버 판재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판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높은 생산성을 변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UV-CTP 공급사, 가격적 우위 활용속 품질도 향상

현재 국내에서 UV-CTP를 공급하는 업체로는 에스앤아이시스템즈, 아이피에이클론, 토탈컴텍을 들 수 있다. 이들 업체가 공급하는 UV-CTP시스템은 일반PS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을 뿐 각자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CTP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먼저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독일 바시프린트사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중의 어떤 PS판이라도 출력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지 원본과 똑같은 고품질의 출력과 빠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DSI(디지털 스크린 이미징), 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등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있다. 또한 UV-세터의 또다른 장점은 펀칭과 출력을 한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핀 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CTP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바 있는 아이피에이클론은 CRON의 UV-CTP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 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용PS판에 직접 노광하여 이전의 필름출력, PS판의 소부과정을 완전히 생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크론의 CTP는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소부 PS판과 CTCP판을 사용할 수 있다. 또다른 크론 CTP의 장점은 자동시스템이지만 수동 판재의 삽입도 가능하다는 것과 컨버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장된 이미지를 타사 장비와 호환해도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루셔의 UV-XPose를 공급하고 있는 토탈컴텍은 일반PS판을 사용해도 2400dpi를 기본 해상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시간당 25~45장의 빠른 출력이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검증된 UV-CTP판을 사용해 경제성 높은 출력물을 생산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내부 드럼과 외부 드럼의 독특한 결합을 하여 정확한 재생과 품질 및 판 고정을



토탈컴텍에서 공급하는 루셔의 XPose

용이하게 했다. 또한 수동에서 자동으로 손쉬운 전환이 가능하며 자동 판공급 장치 및 어떤 워크플로와도 편리하게 호환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 기술의 영향 크게 받은 CTP시스템과 판재

CTP시스템은 앞으로도 일정기간동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 시장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도 각 사별로 핵심고객층에 대한 마케팅이 차별화 되어 일정한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급사들이 고객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의 방향이 워크플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등 거시적이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보이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 일정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CTP시스템 시장은 당분간 스크린, 코닥, 후지필름, 아그파 등의 메이저업체들의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는 없이 유지될 전망이며 보다 향상된 생산성을 지닌 새로운 제품군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CTCP판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시장을 크게 넓힌 루셔, 바시스, 크론의 공급사도 품질의 향상과 가격적인 경쟁력을 무기로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산 판재 강세, POD인쇄 등 시장변화에 촉각

높은 인쇄품질을 위해 인쇄업계와 동반자관계인 판재업계의 어려움은 곧바로 인쇄업계의 어려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출력비는 떨어지고 판재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인쇄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크게 일반판재의 범주에 속해있지만 특화된 판재인 CTCP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CTCP판재는 감도가 우수하고 광범위한 현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일반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루셔, 바시스, 크론 등의 시스템을 가진 인쇄업체들이 선호, 많이 사용되고 있다. CTCP는 연마시에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조밀하고 균일성을 보이며 망점의 재현력도 우수하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CTP판에 비해 가격적으로 저렴한 이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판재의 PS판 시장 점유율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업계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점유율을 국내 판재생산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비절감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인쇄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과거와 달리 크게 좋아진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산 판재의 점유율이 수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에서 판재를 제작하던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 생산한 판재를 역수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산 판재와의 경쟁은 일반판 뿐만 아니라 CTP판 시장에서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국내 PS판 시장에서 포지티브판의 점유율이 약8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판재시장은 인쇄 환경변화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주문형 맞춤 인쇄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디지털인쇄시장이 전체 인쇄시장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판재시장에서도 CTP판재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